9.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指鹿爲馬

진시황이 죽고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록위마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여 이해하고 그 교훈을 생각해 보자.

丞相趙高가 欲專秦權이나 恐群臣不聽하여

乃先設驗하여 持鹿獻於二世曰 "馬也니이다."

二世笑曰 "丞相이 誤邪아? 指鹿爲馬로다."하고

새로 배울 한자

*丞 **승** 정승
鹿 **록** 사슴
*趙 **조** 성씨
邪 **사** 간사하다, **야** 어조사
專 **전** 오로지
*默 **묵** 잠잠하다
*秦 **진** 진나라
畏 **외** 두려워하다
驗 **험** 시험하다

- 성어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다.
- 성어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問左右하니 或默或言이라. 高陰中諸言鹿者以法하니 後에 群臣皆畏高하여 莫敢言其過니라. "십팔사략"

읽고 풀이하기



丞相趙高，欲專秦權，恐群臣不聽，
(마음대로 하다)
丞: 벼슬 이름　欲: ~하고자 하다.　恐: ~할까 두려워

*趙高(조고): 진(秦)나라의 환관. 벼슬은 승상까지 오름.

乃先設驗，持鹿獻於二世曰："馬也"
(~에게)
乃: 이에　設: 시험하여　獻於二世: 이세에게 바치다.

*二世(이세): 진시황의 아들 호해(胡亥)
황제의 자리가 2세, 3세…만세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숫자를 붙여 호칭함.

二世笑曰："丞相，誤邪？指鹿爲馬."
丞相: 조고를 가리킴　邪: ~인가?　爲: ~라고 하다

問左右，或默或言.
左右: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　或: 어떤 사람

高陰中諸言鹿者以法，
(몰래 해치다 (중상하다))
高: 조고　中: 여러　以: ~로써

조고는 몰래 사슴이라고 말한 여러 사람을 법으로써 해치니

*中(중) : ① 가운데 中斷(중단)
② 적중하다 命中(명중)
③ **해치다** 中傷(중상)

*중상(中傷) :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함.

後，群臣皆畏高，莫敢言其過.
高: 조고　莫: ~하지 못하다　過: 잘못

기사문을 읽고 '내가 뽑은 올해의 성어'를 선정해 보자.

생각 넓히기

○○신문 2023. 1. 26

지난해에는 논어 위령공편의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에서 따온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네 탓'만이 크다고 하며, 자신은 숯인 줄도 모른 채 상대방에게 묻은 검댕을 비웃으며 보낸 한 해였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한 잘못들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양 남 탓하기에만 급급하노라면 설령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진대도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를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후략]

경북일보. 2023. 1. 16.

• 내가 뽑은 올해의 성어 :

• 선정의 이유 :

인문학 더하기

고사성어와 닮은 꼴, 신조어

*신조어(新造語): 새로 만들거나 생겨난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매일 신조어가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조어 중 대부분은 유행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일부는 일반 용어처럼 사용되고 시간이 지나 사전에 등재되기도 한다.

'리즈 시절'은 외모, 인기, 실력 따위가 절정에 올라 가장 좋았던 시기를 이르는 말로 사용된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선수 스미스(Smith, A.)는 2004년 축구 클럽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다. 하지만 눈에 띄게 기량이 떨어지게 되고 실망한 팬들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던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을 그리워하며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 후 '리즈 시절'은 어원을 모르는 사람도 어색하지 않게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가스라이팅'은 〈가스등(GasLight)〉(1938)이란 연극에서 유래했다. 주인공 잭이 보석을 훔치기 위해 윗집의 가스등을 켤 때마다 아내가 있는 아래층의 가스등은 어두워졌다. 잭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 아내를 정신병자로까지 몰아세우고, 아내는 점차 자신의 인지 능력을 의심하면서 남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후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는 일반 용어가 되었다.

신조어의 생성과 소멸, 정착의 과정은 언어 사회 현상으로 과거에도 존재했다. 과거의 신조어 중 정착된 것이 오늘날의 '고사성어'인 셈이다. '고사성어'가 수천 년을 거쳐 현재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언어로서 기능과 가치 면에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휘력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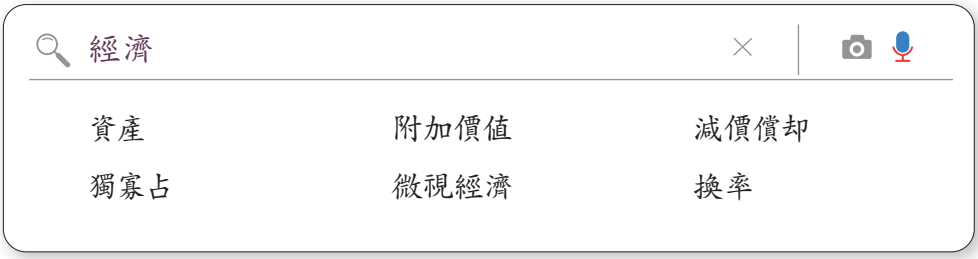


1 '手(扌)'가 들어간 한자

捉 착 잡다 _ 捕捉 포착　　掃 소 쓸다 _ 淸掃 청소　　投 투 던지다 _ 投票 투표
擁 옹 안다 _ 擁護 옹호　　攝 섭 거느리다 _ 攝理 섭리　　援 원 돕다 _ 孤立無援 고립무원

2 학습 용어_경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단어를 찾아보고, 풀이와 의미를 알아보자.



3 어휘의 활용

- 감동 어린 영화의 臺詞 한 구절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 자신의 권력을 위해 어린 황제를 속인 조고의 행동은 禽獸와 다를 바 없다.
- 자칫 노동자들의 罷業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危殆로운 상황이 잘 극복되었다.
-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사회 변혁을 위한 적극적인 實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새로 배울 한자

捉 **착** 잡다　捕 **포** 잡다　掃 **소** 쓸다　擁 **옹** 안다　攝 **섭** 당기다, 거느리다
濟 **제** 건너다, 구제하다　資 **자** 재물　値 **치** 값　償 **상** 갚다　却 **각** 물리치다

확인하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丞相趙高, 欲專秦權, 恐群臣不聽, 乃先設㉠驗, 持鹿獻於二世曰: "馬也." 二世笑曰: "丞相, ㉡誤邪? 指鹿爲馬." 問㉮左右, 或㉢默或言. 高㉣陰㉤中諸言鹿者以法, 後, 群臣皆畏高, 莫敢言其過.

1. ㉠~㉤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시험하다 ② ㉡: 잘못 알다 ③ ㉢: 침묵하다
④ ㉣: 몰래 ⑤ ㉤: 가운데

2.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와 의미상 통하는 것은?

① 馬 ② 群臣 ③ 二世
④ 丞相 ⑤ 言鹿者

3.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指鹿爲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
② 줏대 없이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함.
③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돌아옴.
④ 권력이 있을 때는 따르고 몰락한 후에는 배신함.
⑤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가로챔.

寡 **과** 적다　占 **점** 차지하다　換 **환** 바꾸다　率 **솔** 거느리다, **률** 비율　臺 **대** 무대
禽 **금** 날짐승　獸 **수** 짐승　罷 **파** 그치다　殆 **태** 위태하다　賤 **천** 밟다